

『율리시스』의 「칼립소」장 다시 읽기

— 리오폴드 블룸의 쾌락적 아침식사와 일탈

이 주 리*

[국문초록]

아일랜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1922년 소설 『율리시스』(*Ulysses*)는 1904년 6월 16일 하루 동안 주인공 리오폴드 블룸(Leopold Bloom)이 더블린(Dublin) 거리를 유랑하면서 실천하는 일상 속의 일탈을 표현한 텍스트이다. 블룸의 일탈은 다양한 층위에서 일어나지만, 그 중 대표적인 일탈의 형태는 음식을 먹는 행위와 관련된다. 본 논문은 「칼립소」장에서 블룸이 누리는 아침식사의 쾌락에 초점을 맞추어, 음식을 먹는 행위와 이를 통한 일탈이 유발하는 효과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블룸에게 있어 음식을 먹는 행위는 쾌락의 원천이자, 『율리시스』라는 실험적인 텍스트를 잉태하는 힘이라는 것이 본고의 전제이다. 이에 더하여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블룸이 취하는 쾌락적 소비에 결부된 불안의 정서이다. 블룸은 음식을 소비하는 행위를 통해 쾌락을 누리지만, 쾌락적 소비행위에는 모종의 죄책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주제어: 제임스 조이스, 리오폴드 블룸, 『율리시스』, 「칼립소」, 음식, 일탈, 쾌락
James Joyce, Leopold Bloom, *Ulysses*, “Calypso”, Food, Transgression, Pleasure

감과 불안의 감정이 뒤따른다. 본고는 쾌락과 불안의 공존이 텍스트에 기입된 양상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쾌락에 동반하는 불안의 근거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1922년 소설 『율리시스』(*Ulysses*)에는 “빈 집”이 등장한다.¹⁾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Dublin)의 이클레스(Eccles)가 7번지에 위치한 리오폴드 블룸(Leopold Bloom)의 집이다. 이 집은 광고업자인 블룸이 소프라노 가수인 아내 몰리(Molly)와 함께 사는 공간이다. 아들 루비(Ruby)는 태어난 지 11일 만에 죽었고, 15살이 된 외동딸 밀리(Milly)는 사진을 공부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있다. 1904년 6월 16일 목요일 블룸의 집은 비어있다. 집주인이 외출했다는 점에서 블룸의 집은 비어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집은 비어있지 않다. 오후 4시경 몰리의 애인이자 음악콘서트 제작자인 휴 블레이지즈 보일런(Huge Blazes Boylan)이 노래연습을 하려고 집에 찾아온다. 블룸은 이날 오후 자신의 집에서 몰리와 보일런이 성관계를 가질 것을 예측한다. 이날 아침 블룸은 보일런이 몰리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하고, 이 편지는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한다. 블룸은 둘의 만남이 불륜으로 이어질 것을 눈치 채지만, 아내의 애인과 마주치기를 두려워하고 더블린 거리를 배회한다. 호머(Homer)의 오디세우스(Odysseus)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칼립소 요정에게 저항해야 한다면, 조이스의 블룸은 투쟁 대신 유랑을 선택하고 일부러 집에 오는 시간을 지연시킨다.²⁾

1) James Joyce (1986), *Ulysses* (ed. by Hans Walter Gabler,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New York: Vintage Books. 본고에서 인용하는 『율리시스』의 원문은 1986년 판본을 사용한다. 원문의 번역은 김종건 역 (2007), 『율리시스』(서울: 생각의 나무)를 참고한다.

기존의 『율리시스』 비평은 블룸이 보여주는 수동성과 행동의 지연을 유연성, 관용의 정신, 포용력의 증거로 읽는다. 이러한 담론 안에서 블룸의 수동성은 제국주의적 폭력성에 대비되는 미덕으로 간주되며, 조이스의 모더니즘 미학을 형성하는 원리로 여겨진다. 데이빗 헤이먼(David Hayman)에 따르면, 블룸이 “예술가”나 “그리스도, 모세, 떠도는 유태인, 엘리야, 셰익스피어” 등의 다양한 인물과 동일시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사람에게 공감하는 감수성과 타인의 특성을 흡수하는 포용력 때문이다.³⁾ 블룸의 수동성은 소리 없는 저항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마고트 노리스(Margot Norris)는 블룸의 수동성에 결합된 내내심과 내적 의지를 읽어낸다. 반유대주의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유태계인 블룸은 더블린 “시민”(the citizen)에게 이방인처럼 취급받고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⁴⁾ 노리스에 따르면 블룸은 타인이 강요하는 모멸감을 말없이 거부하고, 편협한 민족주의의 뒷에 걸려들지 않는다.⁵⁾ 블룸의 수동성은 행동하지 않는 자의 나태함과는 차이가 있다. 블룸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는 비평은 오디세우스와 블룸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블룸은 호전성 대신 순응의 전략을 갖춘 조이스의 영웅이라는 것이다. 프랭크 벅전(Frank Budgen)은 조이스가 오디세우스에게 매력을 느낀 동기가 난관에 봉착할

2) 호머의 작품에서 칼립소는 오디세우스 장군에게 마법을 걸어 7년 동안 동거한다. 아테나(Athene) 여신은 사랑의 포로가 오디세우스를 붙잡히 여겨 제우스(Zeus) 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우스는 전령인 헤르메스(Hermes)를 칼립소에게 보내어 오디세우스를 풀어주고 그의 귀환을 돕는다. 김병익 역(1984), 『일리아스, 오딧세이아』, 서울: 삼성출판사, p. 319.

3) David Hayman (1970), “Ulysses”: *The Mechanics of Mea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 58.

4) 『율리시스』의 12장 「키클롭스」(“Cyclops”)에 등장하는 ‘시민’은 페니언 당원이자 극단적 민족주의자이다. ‘시민’은 유태인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주점에서 만난 블룸을 희롱하고, 비스킷 통을 집어던진다.

5) Norris Margot (2014). “Character, Plot, and Myth,” *The Cambridge Companion to Ulysses* (ed by Sean Latha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75.

때마다 발휘되는 그의 지혜 때문이라고 말한다.⁶⁾ 케리 에임스(Keri Ames)도 오디세우스를 전쟁영웅이 아니라 지략가로 이해하고, 블룸을 오디세우스의 후예로 읽는다.⁷⁾

블룸의 수동성을 모더니즘 미학과 연결시킨 대표적인 비평가로는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가 있다. 모레티는 블룸이 보여주는 기질적인 수동성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동성”이라고 본다.⁸⁾ 모레티가 지적 하듯이 『율리시스』의 내러티브는 블룸의 목적 없고, 일상적인 유량으로부터 탄생한다. 조이스의 소설에 등장하는 유량자는 특정한 곳에 집중하는 대신, 다양한 풍경을 동시에 바라보고 “수백 가지의 자극”을 받아들인다.⁹⁾ 디클란 카이버드(Declan Kiberd)도 유사한 설명을 한다. 블룸은 “보는 즐거움”과 “지연의 쾌락”을 누리는 모더니즘 시대의 “플라뇌르”(Flâneur)라는 것이다.¹⁰⁾ 블룸의 유량은 목적지향성을 탈피한 즐거움의 형태를 띤다. 현대판 오디세우스의 하루 여정은 외부의 대상을 오감을 통해 음미하며 맛보는 시간이다. 린지 터커(Linsey Tucker)의 비평은 블룸이 흡수하는 외부의 대상을 음식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블룸은 건강한 식욕의 소유자이다. 블룸이 음식을 “흡수”하고 경험을 “소화”시키는 과정은 외부에서 수용한 인상을 통합하여 재창조하는 작가의 창조행위에 비유된다.¹¹⁾ 플라뇌르의 행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블룸은 다양한

6) Frank Budgen (1954).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New York: Harrison Smith and Robert Hass, p. 16.

7) Keri Elizabeth Ames (2003), "The Oxymoron of Fidelity in Homer's *Odyssey* and Joyce's *Ulysses*," *Joyce Studies Annual* 14, pp. 132-74.

8) Franco Moretti (1996), *Modern Epic: The World System from Goethe to Garcia Marquez*, New York and London: Verso, pp. 142-43.

9) Moretti (1996), p. 140.

10) Declan Kiberd (2008), "Joyce's Homer, Homer's Joyce," *A Companion to James Joyce* (ed by Richard Brown), Malden: Blackwell, pp. 242-43.

11) Linsey Tucker (1984), *Stephen and Bloom at Life's Feast: Alimentary Symbolism and the Creative Process in James Joyce's "Ulysses"*, Ohio: Ohio State University

음식을 맛보고, 바깥 풍경을 찬찬히 관찰하며, 사물의 이미지를 재창조한다. 블룸의 유랑은 과정 자체가 쾌락적이다. 쾌락적 유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블룸의 수동성이다.

블룸의 쾌락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조이스의 주인공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쾌락의 순간들은 『율리시스』를 구성하고, 독자에게 선사할 “텍스트의 즐거움”을 잉태하기 때문이다.¹²⁾ 스티븐의 사색과 미학이론이 예술적 인물의 야심에 관계된다면, 블룸의 유랑과 쾌락은 일상의 축제를 만들어낸다. 『율리시스』에 앞서 출판된 1916년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조이스는 자기반영적 인물 스티븐 데달러스(Stephen Dedalus)를 주인공으로 삼아, 일탈, 쾌락, 자발적 추방을 예술가의 성장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¹³⁾ 예술가를 꿈꾸는 스티븐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조직과 공동체로부터 탈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집, 국가, 교회를 떠나 “침묵”(silence), “추방”(exile), “기지”(cunning)을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한다.¹⁴⁾ 1916년 작품에서 스티븐을 통해 제시된 조이스의 개념은 1922년 소설에서 일상성을 획득하고, 더블린의 소시민 블룸의 삶에서 구체화된다. 『율리시스』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나온 6년 후에 출판되었지만, 이 소설에 대한 구상과 집필은 1916년보다 한참 전부터 시작되었다. 1906년에 조이스는 자신이 유태인이라고 여겼던 더블린 사람 헌터(Hunter)씨를 모델로 삼아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¹⁵⁾ 1914년 아내 노라(Nora)와 트리에스테(Trieste)에서 살던 시절, 드디어 조이스는 『율리시스』의 초반부를 쓰기 시작한

Press, p. 46.

12) “텍스트의 즐거움”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텍스트의 즐거움』(*The Pleasure of the Text*, 1975)에서 사용한 용어를 염두에 둔 것이다.

13) James Joyce (1992),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Penguin.

14) Joyce (1992), pp. 268-69.

15) 김종건(2007), p. 1302.

다.¹⁶⁾ 예술가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작은 일탈을 실천하는 블룸은 고립된 예술가의 “자화상”을 넘어 조이스가 관찰한 보편적인 “현대인”을 재현한다.¹⁷⁾ 스티븐이 자발적 추방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Paris)로 떠나는 반면,¹⁸⁾ 블룸은 더없이 익숙한 더블린 거리를 배회하며 일상 속의 침묵, 추방, 기지를 실천하는 인물이다.

『율리시스』를 잉태하는 힘은 블룸이 먹는 다양한 “음식”에 있다. 음식을 먹는 블룸의 쾌락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철학적 사색에 빠져들고 관념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스티븐의 경우 음식을 먹지 않고 끼니를 거르는 반면,¹⁹⁾ 블룸의 하루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시작된다. 블룸이 처음 등장하는 네 번째 에피소드 『칼립소』장에서부터 블룸은 아침식사의 쾌락을 누린다.²⁰⁾ 이러한 묘사는 주인공에게 보편성과 일상성을 부여하고자 한 조이스의 의도에서 비롯되지만, 홍덕선이 지적하듯이 블룸은 “평범한 소시민의 차원을 넘어서서 독특한 개성이 부여된 인물”이다.²¹⁾ 블룸이 즐기는 음식의 쾌락에는 양가적 속성이 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즐거움이지만, 그럼에

16) Derek Attridge (2004), “Introduction,” *James Joyce’s Ulysses: A Casebook* (ed. by Derek Attrid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7.

17) Ezra Pound (1968), *Pound/Joyce: The Letters of Ezra Pound to James Joyce with Pound’s Essays on James Joyce* (ed. by Forrest Read), London: Faber & Faber, pp. 139-40.

18) 1916년 소설 뒷부분에서 스티븐은 파리로 여행가기 위해 짐을 꾸린다. 『율리시스』의 첫 번째 에피소드 『텔레마키아드』(“Telemachiad”)에서 스티븐은 다시 등장한다. 파리로 여행 갔던 스티븐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 달 만에 더블린에 돌아온다.

19) 『율리시스』에 등장하는 스티븐은 1904년 6월 14일 하루 동안 식사를 거른다.

20) 『율리시스』는 총 1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세 장에서는 스티븐이 주인공이며, 마지막 장인 『페넬로페』(“Penelope”)장은 몰리의 독백으로 서술된다. 나머지 에피소드는 블룸이 주인공이다.

21) 홍덕선(2010), 『제임스조이스저널』, 16.1. p. 178.

도 불구하고 블룸이 즐기는 음식의 쾌락은 일탈을 동반하고, 이러한 특성은 블룸의 개성을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특히 「칼립소」에 표현된 아침 식사 장면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는 블룸이 유대인의 음식 규범을 일탈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조이스는 유대교가 지정한 음식규례를 깨뜨리는 블룸의 선택과 행동을 통하여, 인물의 혼종적 정체성과 쾌락의 개인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음식의 소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블룸의 쾌락은 불안을 동반한다. 블룸이 경험하는 불안의 정서는 종종 억압된 형태로 나타난다. 블룸의 쾌락과 불안이 공존하는 텍스트의 양태에 주목하며, 본고는 「칼립소」장에 표현된 아침식사의 쾌락과 일탈, 그리고 이에 동반되는 불안의 이미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블룸의 콩팥요리

1866년생으로 38세인 리오폴드 블룸은 아일랜드 이민자인 루돌프 비러그(Rudolf Virag)와 아일랜드 태생이자 가톨릭교도인 엘렌 히긴즈(Ellen Higgins)의 아들이며, 스페인 출신 마리언(Marion)과 결혼한 중산층 남성이다. 헝가리 출신 유대인인 루돌프는 자신의 이름을 “꽃”을 뜻하는 블룸으로 개명했으며, 아일랜드에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지만 1888년 자살한다. 리오폴드 블룸은 광고업체에서 일하고 돈에 민감하여, 더블린의 상인들의 하루 수입이 얼마일지 머릿속으로 계산해보기도 한다. 그는 철학적 사색에 깊이 빠져들기보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를 즐긴다. 무엇보다 블룸은 음식을 즐길 줄 안다. 「칼립소」의 첫 부분은 블룸이 평상시 즐기는 음식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리오폴드 블룸 씨는 짐승과 새들의 내장을 맛있게 먹었다. 그는 걸쭉한 거위 내장 수프, 호두 맛이 풍기는 모래주머니, 속을 다져넣은 심장구이, 빵가루를 입혀 튀긴 후 얹게 썬 간, 기름에 튀긴 대구알을 좋아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지진 양의 콩팥을 가장 좋아했는데, 그것은 입천장에 희미한 오줌 냄새를 풍기는 특유의 맛을 주었다.

콩팥이, 그가 흑 달린 쟁반 위에 아내의 아침식사 거리를 차리면서,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자, 그의 마음을 점령했다. 냉랭한 햇빛과 공기가 부엌에 차 있었으나 문 밖은 어디나 할 것 없이 부드러운 여름 아침이었다. 그에게 약간 시장기를 느끼게 했다.²²⁾

하루를 시작하며 블룸은 식욕을 느낀다. 아내에게 가져다 줄 차를 끓이고 빵을 자르는 동안,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먹은 콩팥요리이다. 모드 엘만(Maud Ellmann)은 동물의 살이 아니라 내장을 선호하는 블룸의 취향을 아일랜드인의 정체성과 연결시킨다. 엘만은 아일랜드가 영국의 제국주의에 저항하여 자국의 몸 “안”을 보호할만한 견고한 표피를 갖추지 못하고, “얇은 피부”를 갖고 있었다고 말한다.²³⁾ 블룸을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인물로 읽는다면 엘만의 알레고리적 독법은 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 블룸이 내장요리를 즐긴다면, 영국인의 음식 취향은 살코기로 표현된다. 『율리시스』의 「하데스」(“Hades”)장에서 블룸은 금요일이 가축을 잡는 “도살의 날”(killing day)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국인을 떠올린다. 이어서 블룸은 “오래된 영국”(old England)은 “로스트비프”를 좋아하고, “육즙이 풍부한” 살코기를 먹는다고 말한다.²⁴⁾ 영국계 아일랜드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가 1729년 수필 「겸손한 제안」(“A Modest Proposal”)에서 아일랜드 하층민의 아기

22) Joyce (1986), p. 45.

23) Maud Ellmann (2008), “*Ulysses: The Epic of the Human Body*,” *A Companion to James Joyce* (ed by Richard Brown), Malden: Blackwell, p. 58.

24) Joyce (1986), p. 81.

를 영국 귀족들의 식사로 대접하자고 제안하며 영국의 식민통치를 풍자한 바 있듯이,²⁵⁾ 조이스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영국인과 도축업자의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아일랜드인을 영국인의 음식에 비유한다. 블룸의 음식 취향이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본 엘만의 논의는 흥미롭지만, 이러한 해석은 음식을 중심으로 한 블룸의 쾌락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블룸의 음식취향을 다룬 연구 중 제이 버만 몬트레소(Jaye Berman Montresor)의 논의는 음식, 혼종성, 쾌락의 상호관계를 조망한다. 몬트레소는 블룸의 음식취향이 헬레니즘(Hellenism)문화와 관련있다고 설명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동물을 신전에 바친 후 희생제물의 남은 부분인 내장을 먹는 풍습을 갖고 있었는데, 동물의 내장을 선호하는 블룸의 취향은 그리스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²⁶⁾ 몬트레소에 따르면 블룸은 “문화적 유대인”(cultural Jews)에 속한다. 본래 문화적 유대인은 19세기 영국비평가인 매슈 아놀드(Matthew Arnold)가 사용한 용어이다. 아놀드가 명명한 문화적 유대인은 종교규례만을 따르는 엄숙한 유대인과 구별되고, 고대 그리스 문화의 “밝음”과 “관대함”을 체화하여 다양한 문화에 열린 태도를 보이는 지적이고 미적 감각을 갖춘 유대인을 의미한다.²⁷⁾

블룸이 실천하는 일상의 축제를 다룬 몬트레소의 논의에서 바흐친(Mikhail Bakhtin)의 “카니발”(carnival) 개념은 중요하다. 바흐친은 중세와 르네상스 유럽에서 열렸던 카니발 축제를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규범, 계급, 위계질서가 일시적으로 해체되는 해방의 날로 이해한다. 일상으로

25) Jonathan Swift (2009), *A Modest Proposal and Other Writings* (ed by Carole Fabricant), London: Penguin Books, pp. 230-39.

26) Jaye Berman Montresor (1995), “Joyce’s Jewish Stew: The Alimentary Lists in *Ulysses*,” *Colby Quarterly* 31.3, p. 3.

27) Brayan Cheyette (1993), *Constructions of “The Jews” in English Literature and Society: Racial Representations, 1875-1945*, Cambridg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pp. 206-07.

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카니발 축제 기간 동안, 평민과 하층민은 고기를 먹으며 식욕을 만족시켰고, 목욕을 하고, 성행위를 하며 몸의 쾌락을 즐겼다.²⁸⁾ 몬트레소에 따르면, 바흐친이 묘사한 카니발축제와 『율리시스』에 재현된 “블룸의 날”은 유사한 성격을 띤다. 1904년 6월 16일 아침, 블룸은 아침식사로 고기를 먹고, 패트릭 디그넘(Patrick Dignam)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한다. 오후에는 해변에 있는 여자 거터 맥도웰(Gerty MacDowell)을 바라보며 성욕을 만족시키고,²⁹⁾ 물리의 침대 곁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블룸의 정체성은 혼종성이라는 용어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블룸은 헝가리계 유대인 아버지를 둔 까닭에 유대인으로 인식되지만, 유대인이 모계혈통을 따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를 유대인으로 볼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³⁰⁾ 유대교 밖에 있는 혼종적 유대인이 음식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대교를 믿지 않는 비종교적인 유대인들도 조상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음식규례를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³¹⁾ 블룸이 보여주는 “코셔”(kosher)로부터의 이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블룸은 유대인 문화관습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공동체의 규범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칼립소」장은 블룸의 아침식사가 유대교에서 적합한 음식을 뜻하는 코셔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이것은 이탈, 혼종성, 쾌락

28) Mikhail Bakhtin (1984), *Rabelais and His World* (trans. by Helene Iswolsk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p. 78-79.

29) 거터 맥도웰(Gerty MacDowell)은 『율리시스』의 제13장 「나우시카」(Nausicca)에 등장한다. ‘시민’의 공격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블룸은 오후 8시경을 해변을 산책하고, 바위에 앉아있는 소녀 거터를 보면서 자위를 한다.

30) 블룸이 유대인인가에 관한 논쟁은 1979년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열렸던 조이스 국제심포지엄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31) Elizabeth Telfer (1996), *Food for Thought: Philosophy and Food*, New York: Routledge, p. 71.

의 만남을 표현하기 위한 조이스의 장치이다. 코셔는 유대교 율법이 지정한 정결한 음식을 의미한다. 유태인의 율법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명백히 구분하는데, 이 중 먹을 수 있는 것이 코셔이다. 예를 들어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새김질은 못하는” 돼지의 고기는 부정합한 음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코셔가 될 수 없다(레위기 11:7-8).³²⁾ 적합한 음식과 부적합한 음식을 나누는 유대교의 음식규례는 구별됨을 목적으로 한다. 유태인에게 있어 음식규범은 타민족과 유태인을 분리하는 표시이다.

블룸의 쾌락은 혼종성과 결합된다. 아침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는 혼종적 유태인 블룸은 돼지고기의 콩팥을 먹기로 결정한다. “햄과 달걀”은 “가뭇에 좋은 달걀”이 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고, 목요일에는 “버클리 푸줏간의 양 콩팥도 좋은 게 없는 날”이기 때문에, 양고기 대신 “들루가즈 푸줏간의 돼지 콩팥”을 선택한다.³³⁾ 블룸이 돼지의 콩팥을 아침식사의 메뉴로 선택한 이유는 고기의 맛과 질 때문이다. 블룸에게 음식은 쾌락의 원천이다. 블룸은 미각뿐 아니라 시각과 후각을 통해서도 식욕을 만족시킨다. 아침식사거리를 사기 위해 외출한 블룸은 돼지고기를 파는 들루가즈 푸줏간 앞에 멈춰서, 가게 안에 매달아놓은 흰색과 검정색의 순대, 소시지, 고기뭉음을 바라본다. 이때 흰색 고기는 블룸의 식욕을 떨어뜨린다. 블룸이 즐기는 것은 돼지고기의 피 냄새이다. 그는 “요리하여 양념된 돼지 피의 미적지근한 냄새”를 들이쉬면서 식욕을 만족시킨다.³⁴⁾ 이 장면은 코셔로부터의 일탈을 표현한다. 블룸은 순수를 상징하는 흰색에 거부감을 느끼고, 코셔에 속하지 않는 돼지의 피에 탐닉한다. 코셔는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재료를 선택하고 다루는 요리법도 포함하는데, 이를테면 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도 피는 완전히 제거해야

32) 『한영 성경전서』(1985), 서울: 대한 성서공회.

33) Joyce (1986), p. 46.

34) Joyce (1986), p. 48.

한다. 기독교 구약성경에 따르면, 피는 육체의 생명에 직결되고,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레위기 17:11). 보다 적극적인 일탈은 부엌에서 일어난다. 집에 돌아온 후, 돼지콩팥 요리를 마친 블룸은 “맛있고 연한 고기” 한 점을 입안에 넣고 씹으면서 자신의 식욕을 만족시킨다.³⁵⁾

유대교가 지정한 음식규례를 지키지 않는 블룸의 모습은 조이스가 『율리시스』를 통해 재현하고자 했던 유태인의 유형, 즉 “유대교의 주변부”에 있지만, 여전히 유태인 문화에 “부분적”으로 속해 있는 혼종적인 유태계 아일랜드인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다.³⁶⁾ 조이스가 젊은 나이에 아일랜드를 떠나 트리에스테에서 『율리시스』를 썼고, 유럽에서 유랑생활을 하였듯이, 블룸은 “이질문화의 경계선에 선 인물”이다.³⁷⁾ 더블린에서 돼지푸줏간을 운영하는 들루가쯔도 혼종적 유태인이다. 들루가쯔는 폴란드계 유태인 출신으로 유대교의 규례 밖에 있지만, 자신의 유태계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유태인의 국가건설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 시오니즘을 지지한다.³⁸⁾ 블룸과 들루가쯔로 표현되는 혼종성은 조이스의 시대에 더블린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유태인의 유형일 뿐 아니라, 아일랜드인 출신이지만 가톨릭교회에 반감을 품었던 조이스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³⁹⁾ 『칼립소』는 순혈주의를 거부하고 혼종성을 포용하

35) Joyce (1986), p. 53.

36) Neil R. Davison (1996), *James Joyce, Ulysses, and the Construction of Jewish Identity: Culture, Biography, and 'the Jew' in Modernist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01.

37) 홍덕선 (2010), p. 178.

38) 푸줏간 주인 들루가쯔는 1912년 조이스가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Trieste)에서 모세 들루가쯔(Moses Dlugacz, 1884-1943)를 소설화한 인물이다. 유태인 랍비의 아들인 실존인물 들루가쯔는 당시 영어를 가르쳤던 조이스의 학생이자 열성적인 민족주의자였다. Ira B Nadel (1989), *Joyce and the Jews: Culture and Texts*,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pp. 70-71.

39) Davison (1996), p. 201.

는 조이스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는 도중 블룸은 정원에 있는 닭을 바라보고, 동물의 배설물이 거름이 되어 식물을 자라게 하는 자연법칙을 떠올린다. 이어서 귀부인의 가족장갑을 세척하는 최고의 재료가 소똥이라는 것을 상기한다.⁴⁰⁾ 블룸의 생각은 깨끗함과 더러움, 순결과 오염을 구획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으로부터의 일탈을 전제한다.

블룸의 일상에서 쾌락과 일탈은 동전의 양면이다. 하지만 「칼립소」장은 코셔에 대한 블룸의 복잡한 자의식을 드러낸다. 블룸이 돼지콩팥 요리를 할 때,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그의 곁에서 온다. 블룸은 우는 고양이에게 피 묻은 포장지를 던져주며, 고양이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속담을 떠올린다. 이때 블룸의 의식을 스쳐가는 단어가 “코셔”이다. 블룸은 고양이가 코셔를 지킨다는 가벼운 농담을 던진다.⁴¹⁾ 그런데 코셔에 대한 블룸의 자의식은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뿌리 깊다. 『올리시스』의 제8장 「레스트리고니언즈」(“Lestrygonians”)에서 블룸은 디그넬의 장례식에서 먹었던 “다진 고기”(potted meat)를 떠올린다. 각종 양념을 섞어 다져 만든 고기는 혼종성을 상징한다. 이어서 그는 코셔를 생각한다. “고기와 젖은 섞는 것 금지”라는 유대인 음식 규례를 상기하고, 위생학적 이유로 코셔의 목적을 이해하는 동시대인들에 대해 생각한다.⁴²⁾ 블룸은 유대교 음식규례를 지키지 않지만, 순결과 구별을 목적으로 한 유대교 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메리 더글러스(Mary Douglas)가 『순수와 위험』(*Purity and Danger*)에서 지적하듯이, 다수의 학자들은 코셔의 의미를 위생학적, 윤리적, 미학적 견지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⁴³⁾ 음식을 가려먹는 유대교의 규범은 이집트를

40) Joyce (1986), p. 56.

41) Joyce (1986), p. 51.

42) Joyce (1986), p. 141.

43) Mary Douglas (1986),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률 중 하나로써 신의 백성임을 명시하는 표식이자 영적인 순결함을 위한 것이었지, 육체의 건강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유대인 음식규범의 목적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으나, 블룸은 코서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갖고 있다.

공동체의 규범을 개의치 않는 듯 보이는 블룸이 “코셔”라는 단어를 종종 떠올리고, 음식규례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코셔로부터의 일탈은 블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지만, 그는 쾌락 한 가운데에서 불안함을 느낀다. 코셔에 대한 블룸의 자의식은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과도 관계가 있다. 본래 정결한 음식을 뜻하는 코셔는 결혼에 비유되기도 한다.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행위는 상호간의 약속과 법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를 순결하게 유지하는 삶을 은유하기 때문이다. 블룸이 코셔가 아닌 음식을 먹는다는 설정은 결혼으로부터의 일탈을 암시한다. 외출과 유랑을 통해 블룸은 소소한 외도를 감행하고 쾌락을 즐긴다. 물론 블룸이 등장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인 「칼립소」는 일탈과 유랑의 전조를 보여줄 뿐이다. 이 장에서 블룸은 잠시 푸줏간에 다녀오지만 집에 돌아온다. 음식을 먹는 쾌락도 집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칼립소」장 이후 집 밖에서 일어날 유랑과 외도는 블룸의 의식을 억압한다. 조이스가 기획한 텍스트의 목적대로 블룸은 외출하지만, 그 결과 자기 소유의 영역을 빼앗길 수 있다. 유랑의 쾌락을 누리는 동안 결혼생활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칼립소」에 등장하는 “탄 콩팥”은 블룸의 상황을 표현한다. 블룸은 돼지콩팥 한 조각을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후, 몰리에게 아침식사를 가져다준다. 몰리의 침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구운 콩팥이 타는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달려간다. 타버린 돼지콩팥은 여러모로 블룸을 닮아있다. 돼지는 일탈과 쾌락을 상징한다.

반면 유태인 문화에서 콩팥은 희생을 뜻한다. 고대 유대교에서는 양을 비롯한 동물의 콩팥을 태워 속죄의식을 올렸다. 블룸은 콩팥의 탄 부분을 떼어 내어 고양이에게 던져주고, 고기의 연한 부분을 먹으며 쾌락을 즐기지만,⁴⁴⁾ 사실 탄 콩팥은 블룸의 불안을 드러내는 매개물로 볼 수 있다.

쾌락 속의 불안은 블룸이 떨치기 힘든 문제이다. 아침식사를 즐기는 동안 블룸의 마음 한 구석을 사로잡는 대상은 아내의 애인인 보일런이다. 콩팥을 사고 돌아온 블룸은 두 통의 편지를 받는다. 하나는 보일런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이고, 다른 하나는 딸 밀리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이다. 수상쩍은 보일런의 편지에 대해 블룸은 불안을 느낀다. 밀리가 편지를 베개 아래 슬쩍 밀어 넣자 블룸의 불안감은 커진다. 블룸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보일런의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음식을 먹으며 블룸은 밀리의 편지를 읽는데, 공교롭게도 딸은 편지에서 보일런에 대한 존경심을 표한다. 밀리는 보일런이 작곡한 노래를 칭찬하며, “최고의 찬사”를 보일런에게 전해달라고 말한다.⁴⁵⁾ 아침식사 장면에서 블룸은 음식을 먹고 텍스트를 읽는다. 쾌락적 소비가 이중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쾌락의 한 가운데에서 불안의 정서가 드러난다. 쾌락에 동반된 불안의 정서는 우회적으로 나타난다. 『율리시스』에서 「칼립소」는 블룸의 의식의 흐름이 가장 두드러진 장이지만, 블룸은 내면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블룸의 고백이나 직설적인 표현 대신, 간접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통해 불안의 정서가 전달된다.

쾌락 속의 불안은 딸의 편지를 읽는 중 커져간다. 블룸의 시선은 밀리가 언급한 “피크닉”을 향한다. 밀리는 돌아오는 월요일 친구들과 피크닉을 갈 것이라고 말한다.⁴⁶⁾ 블룸은 밀리가 피크닉에 가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 순간, 보일런이 작곡한 노래의 구절

44) Joyce (1986), p. 53.

45) Joyce (1986), p. 54.

46) Joyce (1986), p. 54.

“사랑스러운 해변의 소녀들”이 블룸의 의식 안에서 맴돈다.⁴⁷⁾ 블룸은 노래 구절과 함께 키스하는 연인들과 밀리를 떠올린다. 블룸의 의식에 연이어 나타난 대상은 몰리이다. 이때 블룸에게 떠오른 단어는 마리온 부인”(Mrs Marion)이다.⁴⁸⁾ 마리온 부인은 보일런이 사용하는 호칭이다. 블룸이 딸의 피크닉을 염려하는 동안, 그의 의식 속에 몰리가 마치 보일런의 애인처럼 등장한다. 이 상황에서 블룸은 가벼운 현기증을 느낀다. 그리고 딸의 피크닉을 막아야 할지 갈등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 막아볼까. 소용없어”라고 혼잣말을 한다.⁴⁹⁾ 블룸의 갈등은 곧 즐거운 상상으로 이어진다. “소녀의 달콤하고 경쾌한 입술”과 “풍만한 고무풀 같은 여인의 입술”을 떠올린다.⁵⁰⁾ 상상하는 가운데 현기증은 온몸에 퍼진다. 현기증은 일종의 마비를 낳는다. 블룸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느낀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쾌락에 대한 즐거운 상상과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염려가 뒤섞여 나타난 증세이다. 하지만 현기증과 마비는 블룸의 상황을 암시하는 복선이기도 하다. 블룸은 밀리의 피크닉 뿐 아니라 몰리와 보일런의 예고된 밀회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결국 밀리의 피크닉에 대한 블룸의 불안은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외출을 의식한데서 오는 자기반영적인 감정이다.

3. 소돔, 에돔, 고모라, 그리고 블룸

블룸이 음식을 통해 누리는 일탈과 쾌락은 일상의 축제를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칼립소』장은 블룸의 탐식에 결부된 이기적인 속성을 보여

47) Joyce (1986), p. 55.

48) Joyce (1986), p. 55.

49) Joyce (1986), p. 55.

50) Joyce (1986), p. 55.

주기도 한다. 블룸의 “음식”이 여자의 몸인 경우에는 쾌락의 자기중심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칼립소』에서 블룸은 입으로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눈으로 여성의 몸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블룸의 관음증적 탐식은 들루가뜨 푸줏간에서 일어난다. 블룸은 푸줏간에서 돼지콩팥을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선다. 이때 블룸의 앞에는 이웃집 여자가 소시지를 사려고 서 있다. 블룸은 여자의 “활기찬 엉덩이”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녀의 엉덩이를 “움직이는 햄”에 비유한다.⁵¹⁾ 여자의 뒤통을 쫓던 블룸은 길거리에서 그녀가 비변인 순경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자, 역시 남자들은 “최상급 소시지”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⁵²⁾ 욕망의 대상이 된 여성의 몸은 푸줏간에서 파는 고기처럼 여겨진다. 여성의 몸을 시선 속에 가두는 블룸의 행위는 이중적이다. 블룸은 유량을 통해 자기 몸의 자유를 누리는 듯 보이나, 상상 속에서 타인의 몸을 속박한다.

쾌락의 이중성은 상업적인 시오니스트(Zionist)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푸줏간에서 여자의 뒷모습을 쳐다보는 블룸은 신문지의 광고를 발견한다. 이 광고는 이스라엘의 티베리아즈 호수가(Lake Tiberias) 근처에 있는 목장이 최적의 “겨울 휴양지”가 될 것이라고 홍보한다.⁵³⁾ 블룸은 광고를 보며 19세기에 이 사업을 조직했던 실존인물 모세 몬테피오(Moses Montefiore)를 떠올린다. 유태계 영국인 몬테피오를 비롯한 시오니스트들의 본래 목적은 자유, 해방, 자치에 있다. 하지만 블룸이 보는 광고 속 농장은 가축을 시장에 팔기 위해 가두어 기르는 곳으로 억압과 구속의 이미지로 점철된다. 가축을 기르는 유태인 사육자와 블룸의 모습은 중첩된다. 광고를 보던 블룸은 농장에서 길러진 가축과 사육자의 모습을 그려본다. 거름더미 위를 저벅저벅 걷는 사육자가 가축의 “숙성된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여기 최상급이 있군”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51) Joyce (1986), pp. 48-49.

52) Joyce (1986), p. 49.

53) Joyce (1986), p. 48.

연상한다.⁵⁴⁾ 블룸이 상상하는 사육자의 언어는 여성의 몸을 고기에 비유하는 자신의 언어를 닮아있다.

『칼립소』에는 자기중심적인 쾌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이웃집 여자를 놓치고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중, 블룸은 고기를 싼 포장지에 있는 광고를 유심히 본다. 시온의 식민지를 홍보하는 식수(植樹)회사 “아젠다스 네타임”(Agendath Netaim)의 광고이다. 터키 정부로부터 “불모의 모래땅”을 구입하여 토지를 개간하는 이 회사는 돈을 투자하면, 이스라엘 서부의 항구 자파(Jaffa) 근처의 땅에 올리브, 오렌지, 아몬드, 시트론을 심어주겠다고 제안한다.⁵⁵⁾ 식수회사는 나무와 열매를 재배한 결과 최상의 “그늘”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한다.⁵⁶⁾ “그늘”은 휴식과 쾌락을 의미한다. 하지만 식민지 회사가 재배하는 열매는 구속과 통제 아래 놓여 있다. 상자 안에 “가뒤틀린” 오렌지는 자파 부둣가에 나란히 배열되어, 감독원의 장부에 일일이 기록되고, 투박한 선원들의 손에 의해 운송된다.⁵⁷⁾ 유대인 민족주의자의 회사가 열매를 다루는 방식은 여성의 몸을 식민지화하여 쾌락을 즐기는 천박한 소비행위를 연상시킨다. 블룸이 여성을 음식에 비유할 때 여성의 몸은 소비의 대상처럼 여겨진다. 의도한 바는 아니라 해도 블룸은 타인의 몸을 통해 쾌락을 취하는 식민주의자의 태도를 공유할 때가 있다.

몸을 통한 에로틱한 상상은 블룸과 『율리시스』를 위해 중요하지만, 여성의 몸을 음식처럼 소비하는 행위는 자기중심적 쾌락이며 창조에 역행하는 낭비를 가져온다. 예컨대 『나우시카』장에서 소녀의 몸을 보며 수음하는 블룸의 행위는 쾌락이 낳는 낭비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한편 『칼립소』장은 탐식이 가져올 수 있는 황폐화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블룸은 광

54) Joyce (1986), p. 48.

55) Joyce (1986), p. 49.

56) Joyce (1986), p. 49.

57) Joyce (1986), p. 49.

고를 보며 유랑하는 열매와 몰리를 동일시하지만, 사실 상자에 갇혀 유랑하는 열매는 블룸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다. 유랑하는 열매에 대해 생각하던 중, 블룸은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 한 점을 보고, 기원전 이스라엘의 불모지를 연상한다.

한 점 구름이 태양을 서서히, 완전히 가리기 시작했다. 회색빛. 저 멀리.

아니, 저렇지 않아. 불모지, 헐벗은 황야. 화산호, 사해: 물고기도 없고, 수초도 없고, 땅 속에 깊이 가라앉은 채. 어떠한 바람도 저 파도, 회색의 금속, 독 서린 안개의 바다를 동요하지 못하리.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그들은 유황이라 불렀지: 황야의 도회들: **소돔, 고모라, 에돔**. 모두 죽은 이름들. 사지 속의 사해. 회색으로 오래된 채. 지금은 오랜 옛날. 바다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종족을 낳았다. 한 허리 굽은 노파가 한 파인트 짜리 병의 목을 움켜쥐고, 캐시디 점 부근에서 건너왔다. 가장 오래된 백성들 전 지구 표면을 멀리 방랑했지, 포로에서 포로로, 증식하면서, 죽어 가면서, 어디서나 탄생하면서. 바다는 지금도 거기에 놓여 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낳을 수 없다. 죽은 거야: 늙은 여인의 그것처럼: 움푹 꺼진 회색 음부.

황폐.

갯빛의 공포가 그의 살을 지졌다.⁵⁸⁾

블룸은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언급된 다섯 개의 죄악의 도시들인 소돔, 고모라, 제보임(Zeboiim), 소알(Zoar), 아드마(Admah)와 기원전 5, 6세기경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시리아, 바빌로니아 등에서 겪은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떠올린다. 돈 기포드(Don Gifford)는 블룸이 “에돔”(Edom)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것은 실수라고 설명한다.⁵⁹⁾ 에돔은

58) Joyce (1986), p. 50. 강조는 필자.

59) Don Gifford, and Robert J. Seidman (1988),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75.

에서(Esau)의 별명으로, 심판으로 인해 사라진 다섯 개의 도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룸이 무심결에 떠올리는 “에돔”은 단순한 말실수라기보다, 그의 불안을 표현하는 이미지이다.

에돔과 블룸의 연관성에 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진 에서는 야곱(Jacob)의 쌍둥이 형으로 이삭(Isaac)과 리브가(Rebecca)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Abraham)은 사라(Sara)와의 관계에서 백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육십 살에 쌍둥이 아들을 얻는다. <창세기>에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으니, 형보다 동생이 더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25:23)고 기록된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 겨루는 관계이다.⁶⁰⁾ 내향적인 야곱과 달리 형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을 즐긴다. 존 앤더슨(John P. Anderson)은 『울리시스』에서 사냥꾼 기질을 가진 보일런이 에서와 유사하고, 수동성을 보이는 블룸이 야곱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⁶¹⁾ 앤더슨의 논의는 일견 타당하지만, 『칼립소』장은 에서와 블룸의 연관성을 암시한다. 에서는 충동적인 식욕을 갖고 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허기를 느끼고 야곱이 쏘고 있던 팔죽을 달라고 하고, 야곱은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에서는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다. 이 사건이 계기가

60)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동생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 즉 책략가 혹은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61) John. P. Anderson (2000), *Finding Joy in Joyce: A Reader's Guide to Ulysses*, Universal Publishers, pp. 276-77. 블룸과 오디세우스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논의도 참고할만하다. René Girard (1977), *Violence and the Sacr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5-6. 지라르의 글은 야곱과 오디세우스의 유사성에 착안한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털 많은 에서로 변장하기 위해 양의 털을 붙이고 눈이 어두운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과, 양의 배 밑에 붙어서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를 탈출한 오디세우스를 비교한다. 오디세우스처럼 블룸을 지략가로 본다면, 블룸과 야곱의 유사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겠으나, 결국 블룸이 “속는 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에서와 유사한 면이 있다.

되어, 에서는 장자의 특권과 상속권을 빼앗긴다.

팔죽과 장자의 특권을 교환한 사건 이후, 에서는 한 번 더 일탈한다, 은유적 의미에서의 코서인 결혼규례를 깨뜨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의 자손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에서는 두 명의 외국인과 혼인하여 적법한 결혼의 규례를 깨뜨린다(창 26: 34-35). 에서의 일탈은 음식과 결혼을 통해 일어난다. 소돔의 타락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원래 소돔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이었다. 음식과 물이 풍부해서 그 땅에는 기근이나 가뭄이 없었다. 소돔의 풍요로움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Lot)은 그곳에 살기로 택했던 것이다(창 13:10). 하지만 소돔은 극심한 성적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 멸망에 이른다. 불의 심판으로 인해 불모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에돔 역시 음식과 성으로 인해 황폐해진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인 동시에, 에서의 후손과 그들이 살아가던 영도를 뜻한다. 에돔 족이 거주했던 에돔 땅은 사해 남쪽에 위치한 척박한 곳으로 지형이 험하고 높은 지대에 있어서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변영하기도 했지만,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함락되어 파괴된 시기에 멸망한다. 소모적인 쾌락추구의 결과 소돔, 고모라, 에돔은 생명을 잉태하는 터전을 잃게 된 것이다. 「칼립소」에서 나타난 에돔의 이미지는 아들이 죽은 후 11년 동안 몰리와 성관계를 갖지 못한 블룸이 느끼는 “빈 몸”에 대한 불안을 투영한다. 블룸은 호색적인 상상에 탐닉한 이후 이스라엘의 황무지를 연상하게 되고, 동시에 허리가 굽은 노파를 만나게 되며, 연이어 늙은 여인의 회색우무를 떠올리게 된다.⁶²⁾ 곧이어 블룸은 “젯빛의 공포”가 자신의 몸을 관통하고 “차가

62) 윌리엄 요크 틴달(William York Tindall)은 블룸의 “호색적인 공상”이 자기추방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틴달에 따르면 부부관계에서 블룸이 겪는 소외감은 몰리를 대신할만한 대상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며 외도하는 블룸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발생한다. William York Tindall (1959),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pp. 150-51. 한편 몰리를 팜프파탈로 보고, 블룸을 희생양으로 단순화하는 입장도 있다. 예컨대 해리 블러미어스(Harry Blamires)는

운” 피가 혈관에 흐른다고 느낀다.⁶³⁾ 뿐만 아니라 “소금외투”를 입은 것처럼 자신의 몸이 불모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⁶⁴⁾ 소금외투를 두른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황무지의 이미지와 중첩된다. 창조에 역행하는 형태의 쾌락추구는 “빈 터”와 “빈 몸”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굴복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

빈 터와 빈 몸에 대한 블룸의 불안은 텍스트의 창조에 대한 작가의 자의식과 맞닿아있다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소설 속의 인물이 만드는 쾌락의 순간들이 모여 텍스트의 완성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고민이 블룸에게 투영되어 있는 듯 보인다. 본질적으로 조이스는 완성에 크게 열매이지 않는 작가이다. 조이스가 『율리시스』를 구상한 해는 1906년이고, 첫 번째 에피소드를 쓴 것은 1914년이다. 1915년 트리에스테에서 스위스 취리히로 거처를 옮긴 후 조이스의 글쓰기는 계속 되지만, 세계1차 대전, 경제적 궁핍, 심각한 눈병 등으로 인해 글쓰기는 한동안 중단된다.⁶⁵⁾ 1919년 조이스가 취리히를 떠났던 해에 소설의 18개 에피소드 중 12개가 완성된다. 그 후, 트리에스테에 잠시 머물던 무렵 두 개의 에피소드를 더 쓰고, 파리로 거처를 옮긴 후 나머지 장을 집필한다. 1921년 마지막 에피소드가 완성되기 전, 조이스는 눈병의 재발로 인해

물리의 침대 곁에 걸려있는 수채화 그림 “님프의 목욕”(The Bath of the Nymph) 속에 있는 요정은 호머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신 칼립소이고, 물리가 칼립소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Harry Blamires (1996), *The Bloomsday Book: A Guide through Joyce's Ulysses*, London: Methuen & Co. Ltd., p. 20.

63) Joyce (1986), p. 50.

64) Joyce (1986), p. 50.

65) Attridge (2004), p. 7.

또 다시 글쓰기의 어려움을 겪는다.⁶⁶⁾ 글쓰기를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지만, 약 8년 만에 『올리시스』는 완성된다. 작품구상단계를 포함한다면 15년만의 완성이다. 데릭 애트리지(Derek Attridge)가 말하듯이, 이 소설이 “완성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이다.⁶⁷⁾ 창작의 과정에서 조이스는 『올리시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독창적인 소설을 실험하는 예술가로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방대한 텍스트의 완성을 꾸준히 이루어나갈 수 있었다.⁶⁸⁾ 『올리시스』가 완성되기까지의 지난한 글쓰기 과정이 증명하듯이, 조이스는 완성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작가가 완성을 욕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블룸이 느끼는 빈 터에 대한 불안은 비어있는 텍스트, 즉 미완성의 텍스트에 대한 작가의 불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텍스트의 쉬운 완성을 거부한다. 블룸의 쾌락이 모여 『올리시스』를 만들어내듯이, 작가가 쓰기 원하는 글은 쉽게 “만족시켜 주고, 채워주고, 행복감을 주는” 자기충족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사회문화로부터의 일탈과 “과도한 쾌락”을 포용하는 텍스트이다.⁶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에 대한 불안은 남아 있다. 쉬운 텍스트에 대한 저항과 매력은 『칼립소』의 뒷부분에 드러난다. 아침식사를 마친 블룸은 화장실에 간다. 이때 챙겨가는 것이 주간지 『틔비츠』(Titbits)이다. 화장실에 앉아있는 블룸은 잡지에 실린 뷰포이씨(Mr. Beaufoy)의 단편소설 「맛참의 탁월한 솜씨」(“Matcham’s Masterstroke”)를 읽는다.

66) Attridge (2004), p. 8.

67) Attridge (2004), p. 7.

68) Attridge (2004), p. 7.

69) Roland Barthes (1975), *The Pleasure of the Text* (trans. by Richard Howard), New York: Hill and Wang, p. 14.

힘을 주면서, 그는 첫째 단을 조용히 읽어나갔고, 굴복하면서 그러나 버티면서, 둘째 단을 읽기 시작했다. 반쯤 와서, 그의 최후의 저항에 버티며, 어제 있었던 약간의 변비가 완전히 가시도록 계속 끈기 있게 읽으면서, 그가 읽자, 그의 창자가 싹 비워졌다. 너무 커서 치질이 재발하면 안 될 텐데. 아냐. 딱 좋아. 그래. 아하! 변비에는 카스카라 사그라다 한 알을. 인생도 이런 것이겠지. **그것은 그를 감동시키거나 자극하지는 않았지만 빠르고 딱 떨어진다.** 요즘은 아무 거나 출판된다니까. 우스운 시절 … 시작과 끝이 교훈적인걸. “손에 손잡고.” 영리하군. 그는 읽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훑어보며 자신의 물이 고요히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는 동안, 그것을 써서, 3파운드, 13실링 6페니의 고료를 받은 부포이씨를 짐짓 부러워했다.

짧은 글 정도는 가능할지도. 블룸 씨와 블룸 부인 작. 평판을 위해 한 편 쓴다?⁷⁰⁾

블룸은 텍스트를 읽으며 “굴복”할 것인지 “버틸” 것인지 갈등한다. 굴복하는 것은 배설한다는 뜻이고, 버틴다는 것은 배설을 참는다는 뜻이다.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항문 단계에 있는 유아가 배변을 참는 것이나, 고의적으로 대변보기를 미루는 행위는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기 애적 “불복종”이라고 설명한다.⁷¹⁾ 배변을 미루는 것은 항문 점막에 강한 자극을 일으키고, 이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쾌감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블룸은 음식과 텍스트를 먹는 행위를 통해 쾌락을 즐기고, 배설을 지연 시킴으로써 쾌락의 수위를 높인다. 한편 배설하는 행위는 자기 몸 속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으로써 일종의 승화이자 굴복이다. 작가가 텍스트를 쓰는 행위도 배변작용과 일견 유사하다. 그렇다면 텍스트는 배설물에 비유될 수 있다. 텍스트와 배설물은 음식물을 흡수하여 생겨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조이스가 프로이트의 이론을 의식하고 블룸의 배설장면을 묘

70) Joyce (1986), p. 56. 강조는 필자.

71) 김정일 역 (2008),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서울: 열린책들, pp. 82-83.

사했는지는 알려진바 없지만, 「칼립소」에서 텍스트와 배설물은 유비관계를 이루고, 블룸(작가적 인물)은 자신이 배설한 텍스트(배설물)의 곁에 있다. 조이스가 표현한 작가와 텍스트의 근접한 위치 설정은 스티븐의 미학이론, 즉 예술가는 작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패러디한다.⁷²⁾ 블룸은 이론에 함몰되지 않고, 사소한 경험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가는 일상 속의 예술가를 체현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조이스가 창조하기를 원하는 텍스트는 화장실에서 블룸이 만들어낸 “딱 알맞은” 크기의 배설물과는 다른 종류이다. 배설의 욕구에 적당히 굴복한다면 『올리시스』에 준하는 방대한 텍스트가 나올 수 없다. 쾌락의 지연과 배설욕구에 대한 최대한도의 저항이 『올리시스』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칼립소」에서 블룸이 만들어낸 배설물은 조이스가 궁극적으로 만들어낼 텍스트의 형태와 다르다. 본 맥락에서 블룸의 배설물은 쉽게 씹어진 텍스트를 은유한다. 뷰포이가 쉽게 쓴 단편과 배설물은 평행관계를 이룬다. 뷰포이의 단편을 읽던 블룸은 배설을 마친 후, “인생도 그런 것이겠지”(“Life might be so”)라고 생각한다. 블룸이 책을 읽으면서 볼 일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생”에 비유되는 것이 뷰포이의 단편인지, 아니면 자신의 배설물을 의미하는지 다소 불분명하다. 언어표현의 애매함은 단편과 배설물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잇따르는 문장은 뷰포이의 글과 블룸의 배설물을 더욱 밀착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것은 그를 감동시키거나 자극하지는 않았지만 빠르고 딱 떨어진다”는 문장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이 문장의 주어 “그것”(it)은 뷰포이의 글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뷰포이의 단편은 인생을 축소한 텍스트로써 “빠르고 딱 떨어지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것”이라는 주어가 블룸의 배설물을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의미는 달라진다. 블룸의 배설물은 “그를 움직이게 하거나 건드리지

72) Tucker (1984), p. 51.

않고 빠르고 적당한 것이었다” 정도로 읽을 수 있다.

블룸은 『맛참의 탁월한 솜씨』로 현상공모에 뽑혀 상금을 받은 뷰포이를 부러워하는 듯 보이지만, 그가 뷰포이의 단편을 바라보는 태도는 단순하지 않다. 이야기가 “딱 떨어진다”는 블룸의 언어가 나타내듯이 뷰포이의 단편은 시작과 끝이 교훈적이고, 깔끔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글을 읽는 블룸은 “요즘은 아무 거나 출판된다”고 생각한다. “우스운 시절”이라는 구절은 앞문장과 공명하며, 뷰포이에 대한 블룸의 질투가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 단편의 시작과 끝이 “교훈적”이라는 것과, 글이 명료하다는 것, 표현이 “영리”하다는 블룸의 평가는 작품에 대한 진심어린 칭찬이 아니다. 블룸은 뷰포이의 단편에서 “손에 손잡고”라는 구절을 눈여겨본다. “손에 손잡고”는 결혼과 완성을 의미한다. 남녀 간의 결합으로 끝나는 뷰포이의 단편은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지극히 안정적인 글이다. 글을 읽던 블룸은 “블룸 씨와 블룸 부인”이 함께 “평판을 위해” 단편 하나를 쓸 수 있을지 자문한다. 블룸의 질문에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글을 쓰거나, 결혼을 은유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현실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적 자의식이 담겨져 있다. 앞서 블룸이 읽었던 “아젠다스 네 타임”의 광고에서 강조하는 바도 연합과 이름이었다. 유태인 식수회사는 땅을 구매한 투자자의 이름을 “연합의 서”(the book of union)에 새겨주겠다고 홍보함으로써,⁷³⁾ 결혼의 은유를 오용하고 이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

“딱 알맞은” 크기의 배설물과 유사한 종류의 텍스트는 『율리시스』를 쓰는 조이스의 지향점이 될 수 없다. 블룸이 볼 일을 본 후, 결국 뷰포이의 단편은 화장지가 된다. 이처럼 조이스는 억지로 끼워 맞춘 식의 완성에 저항한다. 하지만 미완성에 대한 작가의 불안은 남아있다. 조이스의 불안은 블룸에게 투영된다. 뷰포이의 글을 읽던 블룸은 자신이 나름대로

73) Joyce (1986), p. 49.

글을 쓰기 위해 시도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블룸은 몰리가 말한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 “9시 15분. 로비츠가 당신에게 이미 돈을 갚았나요? 9시 20분 그레타 콘로이는 뭘 입었었지요? 9시 23분. 내가 이런 빗을 사다니 무슨 생각이었을까? 9시 24분. 그 양배추를 먹은 다음부터 살이 쪼어요”⁷⁴⁾ 등의 일상의 언어를 옷의 소매 단이나 종이에 적어 둔 것이다. 블룸이 기록한 말들은 완성된 글로 발전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단계에서는 텍스트를 위한 재료일 뿐이다. 몰리의 말을 적어두는 블룸은 텍스트를 준비하는 작가와 유사하다. 하지만 몰리와 보일런이 처음 만났던 무도회 장면이 떠올랐을 때, 블룸의 자유로운 연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다. 보일런에 대한 몰리의 관심과, 보일런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부자인 것 같다고 말하던 몰리의 말은 블룸을 억압한다.⁷⁵⁾ 말들의 향연 속에서 유랑하던 블룸은 보일런의 그림자를 만난다. 길거리의 “음식”을 먹으며 유랑하던 가운데 에돔의 이미지를 본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5. 맏으며

더블린 거리를 배경으로 한 실험적인 소설을 쓰고자 한 조이스의 기획에 따라, 『율리시스』의 주인공 블룸은 외출하고, 더블린 거리를 배회하며, 다양한 음식을 맛본다. 블룸의 쾌락적 유랑은 뷰포이가 쓴 「맛참의 탁월한 솜씨」와는 다른 형태의 텍스트를 창조하는 힘이다. 조이스가 상상하는 텍스트의 즐거움을 위해, 블룸은 집으로부터의 자발적 추방을 선택하고, 코셔로부터 이탈하며, 유랑의 쾌락을 누린다. 일상 속에서 블룸

74) Joyce (1986), p. 56.

75) Joyce (1986), p. 57.

이 누리는 쾌락의 결과는 『율리시스』의 탄생이다. 하지만 블룸의 쾌락은 불안을 동반한다. 쾌락을 추구하는 동안, 블룸은 자신에게서 소돔과 에돔의 형상을 발견한다. 불안의 정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쾌락에 결부된 자기중심성이 불안의 정서를 일으킨다. 블룸의 쾌락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이로써 공동체의 즐거움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쾌락추구의 자기중심성은 블룸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불안의 이면에는 박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유랑하며 음식을 먹는 동안, 블룸은 자신의 영역을 위협받는다. 블룸은 보일런이 집을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배회한다. 유랑이 자신의 임무인 까닭에, 블룸은 집을 욕망할 때에도 귀환할 수 없다. 블룸의 유랑은 때로 강요된 쾌락이다. 마지막으로 블룸의 불안은 결국 조이스의 불안이다. 블룸을 괴롭히는 “빈 터”와 “빈 몸”의 이미지는 완성된 텍스트에 대비되는 미완성을 표상한다. 『율리시스』의 독자는 쾌락의 순간들이 통합되어 텍스트의 완성을 이루어 낸 결과물을 보지만, 창작의 과정에 있는 작가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 쾌락의 파편들이 유의미한 창조, 즉 텍스트의 완성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작가의 고민이 『율리시스』의 초반부인 「칼립소」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참고문헌

【자 료】

- 김병익 역(1984). 『일리아스, 오딧세이아』. 서울: 삼성출판사.
 김종진 역(2007). 제임스 조이스 저 (1922). 『율리시스』. 서울: 생각의 나무.
 『한영 성경전서』(1985). 서울: 대한 성서공회.
 Joyce, James (1992).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Penguin.
 _____ (1986). *Ulysses*. New York: Vintage Books.

【논 저】

- 김정일 역(2003),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1920),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서울: 열린책들.
 홍덕선(2010), 「경계에 선 유대인 타자로서의 블룸」, 『제임스조이스저널』 16.1, 한국제임스 조이스학회.
 Ames, Keri Elizabeth (2003), “The Oxymoron of Fidelity in Homers *Odyssey* and Joyce’s *Ulysses*.” *Joyce Studies Annual* 14.
 Anderson, John. P. (2000), *Finding Joy in Joyce: A Readers Guide to Ulysses*, Universal Publishers.
 Attridge, Derek (2004), “Introduction,” *James Joyce’s Ulysses: A Casebook* (ed. by Derek Attrid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akhtin, Mikhail (1984), *Rabelais and His World* (trans. by Helene Iswolsk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Barthes, Roland (1978), *The Pleasure of the Text* (trans. by Richard Howard), New York: Hill and Wang.
 Blamires, Harry (1996), *The Bloomsday Book: A Guide Through Joyce’s Ulysses*, London: Methuen & Co. Ltd.
 Budgen, Frank (1960),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0.
 Cheyette, Brayan (1993), *Constructions of “The Jews” in English Literature and*

- Society: Racial Representations, 1875-1945*, Cambridg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 Davison, Neil R. (1996), *James Joyce, Ulysses, and the Construction of Jewish Identity: Culture, Biography, and 'the Jew' in Modernist Europe*, Cambridge: Cambridge UP, 1996.
- Douglas, Mary (1986),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New York: Routledge.
- Ellmann, Maud (2008), "Ulysses: The Epic of the Human Body," *A Companion to James Joyce* (ed. by Richard Brown), Malden: Blackwell.
-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 (1988),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rard, René (1977), *Violence and the Sacred* (trans. by Patrick Greg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ayman, David (1970), "Ulysses": *The Mechanics of Mea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Kiberd, Declan (2008), "Joyce's Homer, Homer's Joyce," *A Companion to James Joyce* (ed. by Richard Brown), Malden: Blackwell.
- Montresor, Jaye Berman (1995), "Joyce's Jewish Stew: The Alimentary Lists in *Ulysses*," *Colby Quarterly* 31.3.
- Moretti, Franco. *Modern Epic: The World System from Goethe to Garcia Marquez* (trans. by Quintin Hoare), New York and London: Verso.
- Nadel, Ira B. (1989), *Joyce and the Jews: Culture and Texts*,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 Norris, Margot (2014), "Character, Plot, and Myth," *The Cambridge Companion to Ulysses*, (trans. by Sean Latha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und, Ezra (1968), *Pound/Joyce: The Letters of Ezra Pound to James Joyce with Pound's Essays on James Joyce* (ed. by Forrest Read), London: Faber & Faber.
- Swift, Jonathan (2009), *A Modest Proposal and Other Writings* (ed. by Carole Fabricant), London: Penguin Books.
- Telfer, Elizabeth (1996), *Food for Thought: Philosophy and Food*, New York:

Routledge.

Tindall, William York (1959),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Tucker, Linsey (1984), *Stephen and Bloom at Life's Feast: Alimentary Symbolism and the Creative Process in James Joyce's "Ulysses,"* Ohio: Ohio State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16년 4월 12일

심사 완료일: 2016년 4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6년 4월 27일

ABSTRACT

Rereading “Calypso” in *Ulysses*

— Leopold Bloom’s Hedonistic Breakfast and Deviation

Lee, Joori*

This paper explores the aspects of Leopold Bloom’s eating that are represented in “Calypso,” the fourth episode of James Joyce’s *Ulysses* (1922). In epitomizing the ethos of modern metropolitan flâneur, Bloom, with his prosaic wandering, tastes and digests a broad range of cuisines throughout the entire text. As a Hungarian Jew in Dublin and a cultural transgressor, Bloom, for all his desire for pleasure, savors forbidden foods, including the pork kidney not included in the category of Jewish kosher. Representing a resistance to the culture of exclusion, Bloom’s eating creates his individual pleasure and the pleasure of *Ulysses* — recognizable for its inclusiveness and heterogeneity. However, while profiting pleasures from the transgressive eating, Bloom becomes preoccupied with a sense of guilt and anxiety, although such feelings are often repressed in his mind. In keeping with this idea, my discussion of “Calypso” examines how the text presents the combination of pleasure and anxiety, by focusing on Bloom’s transgression from kosher. To speculate about the reasons for Bloom’s anxiety, this article tries to unravel a sequence of images inscribed in “Calypso,” which, in fact, betray Bloom’s anxiety of consumption.

* Lecture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